

실크로드 문화 꽃핀 곳, 신라 경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콜로세움서 주장



“석굴암을 비롯해 신라시대 불교 문화 대부분은 실크로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불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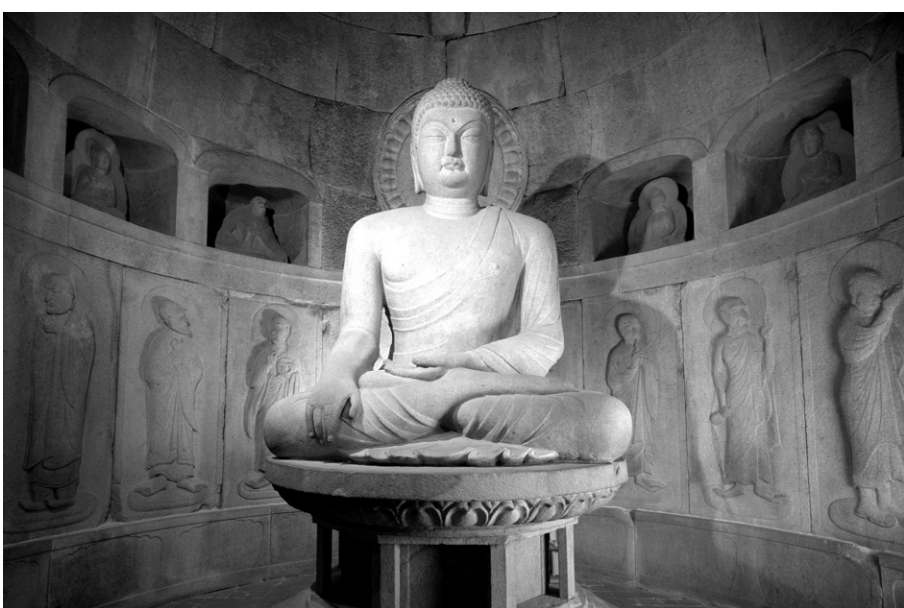
실크로드가 신라불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1980년대부터 실크로드 문명에 대해 연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12월 13일 경주 동국대 원효관 글로벌 리더스홀에서 열린 예정인 경주 불교 콜로키움 ‘실크로드의 東流, 경주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신라불교가 실크로드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날 문명대 교수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삼존불상의 특징이 인도 사르나트 박물관에 소장된 녹아원 굽타불상 양식과 같은 점 등 신라불교가 중국계열의 불교보다 실크로드의 불교문화를 더욱 반영했음을 주장한다.

문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신라 삼보 중 하나인 황룡사 금동석가상 존불상을 비롯해 황룡사 대탑, 영묘사·흥륜사·법림사 장육존상 등은 실크로드 상의 불상과 양식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국보 79호,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金銅彌勒半伽思惟像)도 실크로드 상의 불교미술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경주 감산사 본존불인 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불 입상의 U형 옷주름은 인도 우진왕도상식 불상이 신라화돼 나타난 특징”이라며 “굽타양식이 신라적 아름다움으로 승화됐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대표적 신라불교문화재로 평가받는 석굴암에서도 실크로드의 영향이



문명대 교수는 석굴암 10대제자상이 아리아인 고승상을 그대로 모형했다고 말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석굴암은 판석을 짜서 조성한 축조석굴로 그 근원은 간다라 석굴형식으로 중국 분토를 건너뛰어 신라로 곧장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석굴암 10대제자상을 보면 인도 아리아인의 고승상을 그대로 모형했다”며 “이는 중국 달마상, 나한상보다 더

실크로드의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이는 신라의 불교문화가 중국 분토를 건너뛰어 신라로 곧장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석굴암 10대제자상을 보면 인도 아리아인의 고승상을 그대로 모형했다”며 “이는 중국 달마상, 나한상보다 더

“종교 그 자체로 합리적, 과학화 불필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리의 삶을 규정하며 합리성의 상징으로 자리한 과학도 과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기반한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의 합리성 추구하고 그로 인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 정립돼야 한다.”

미래사회 종교는 합리성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종교의 합리성이 과학이 지닌 권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신대 종교와 문화연구소와 과학사상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종교의 합리성 증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 교수는 이날 “지금까지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는 끊임없이 시도돼 왔지만 최근 과학교과서 진화론 퇴출 시도 및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의 유행은 과학과 종교 간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과학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산업사회의 생존전략으로 자

리했지만 과학적 사실도 당대의 과학자가 제시한 결과를 믿는 행위”라며 “주관적 믿음에 바탕을 둔 종교행위와 달리 일반적으로 객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적 사실도 종교를 믿는 행위와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어 “합리성의 바탕이 믿음이라면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 영성에 근거한 합리성이 동일한 믿음구조 위에 서로 우열이 없다”며 서로 다른 영역을 대변하는 두 믿음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최근 일고 있는 창조과학 등에 대해 비판했다. 우 교수는 “이렇게 본다면 종교를 굳이 과학의 언어로 풀어가려는 행위는 영적 합리성을 버리고 과학의 이성적 합리성에 맞추려는 행위”라며 “진리구현이 아닌 자본주의와 결합해 물질적 세속화로 빠져드는 모습의 일환이다”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청계산 일대 발굴조사 필요하다”

의왕문화원 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서 목소리 모아

조선왕실 원찰인 원통사를 비롯해 청계산 일대의 사지뿐만 남아있는 사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의왕문화원(원장 박용일) 향토문화연구소는 12월 6일 의왕문화원에서 ‘원통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왕 청계사를 비롯한 의왕 원통사지 등 청계산 일대의 사찰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다. 학술대회에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 황보경 세종대 박사, 양정석 수원대 교수가 발표했다.

먼저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의왕시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에서 “의왕 청계사가 사도세자의 능침사찰로 화성 융주사와 함께 정조의 원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계사는 한때 선종본산이었던 사찰로 수월 화성을 축조하기도 한 조인규 가문의 원찰이다.

황인규 교수는 “청계사는 현재 융주사 말사지만 융주사보다 먼저 능침사찰로 지정됐다”며 “그 전까지 조인규 가문뿐만 아니라 정조의 원당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양정석 수원대 교수는 ‘의왕 원통사지

의 사역과 원찰로서의 중간과정’에서 “원통사지가 소헌왕후의 원찰이었던 ‘원통암’이었다”고 공개했다.

양 교수는 조선 문신 김수은(1409~1481)의 《식유집(拭遺集)》에 실린 ‘원통암중창기’를 통해 원통암이 소헌왕후의 원찰이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또 “명나라 4대 황제 인종의 연호인 ‘홍희(洪熙)’가 적힌 기와가 발견됐다”며 “세종 7년 원통암이 중수됐다”고 설명했다.

황보경 세종대 박사는 ‘의왕 원통사지 조사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원통사지 발굴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2000~2001년 세종대박물관의 광역지표조사, 2010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폐사지 조사와 답사 결과를 통해 “원통사지에 축대, 건물지 6동, 무물지 1곳, 연화대석, 석축 등이 발견됐다”고 소개했다.

황 박사는 “현재 사지 내에 비닐하우스가 지어지고 경작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원통사지를 포함해 청계산 불교유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관리보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견해차 구분없는 화쟁은 ‘언어유희’

박태원 교수, 한국불교사연구소 제3차 집중세미나서

사회갈등 문제에서 해법으로 제시되었던 화쟁사상의 무분별한 도입을 비판하고 화쟁사상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12월 1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3차 집중세미나에서 “견해 계열(門)의 구분이 없는 화쟁은 실질적 치유력이 없는 공허한 ‘언어유희’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원효의 화쟁은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파악의 능력으로 온전한 진리 수렴과 향상의 길에 화쟁사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화쟁의 치유력은 ‘견해에 달라붙지 않는 무집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쟁점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인정·수용하며 서로 다른 조건적 타당성을 변별해 포섭하는데서 화쟁의 통섭이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화쟁 원리로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조탈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一心) 열기’ ‘언어 환각에서 풀려나 언어를 사용하기’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一理)을 변별해 수용하기’를



에도 들었다.

박 교수는 특히 각각의 주장들이 지니는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면 상호작용으로 보다 유의한 향상의 길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각 견해들의 조건적 타당성을 더욱 깊고 온전하게 포착하려면 견해에 달라붙지 않는 무집착의 능력이 필요하며 지혜와 자비의 구현에 민바탕이 된 언어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에서 원효 저술이 총 103부 219종이라고 밝혔다. 또 원효 스님의 학문방법이 ‘명제의 제시-분석-회통(해석)’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도훈 한양대 교수는 ‘원효의 교체론과 언어관’에서 “원효 스님은 언어 한계를 인식해 의어를 통해 진언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목조문화재 정밀조사보고서 발간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등 9건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大雄寶殿) 등 9건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정밀실측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청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할 때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와 학술연구를 위해 매년 10여 건씩 정밀실측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국공립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등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전자문서 형태로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게재한다.

(www.chago.kr)에 게재한다.

동국역경원, <경률이상(經律異相)> 출간

불교경전 전생담 등 설화 모은 책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에 얽힌 이야기와 설화 등이 집대성된 한 글대장경 <경률이상(經律異相)> 1, 2, 3권이 동국역경원에서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경률이상(經律異相)>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남조의 양나라 보창 스님이 무제(武帝)의 명을 받아 여러 불전에 등장하는 비유나 전생담 등 신비한 고사를 뽑아 편찬한 책이다.

<경률이상(經律異相)>은 불교경전 중 경전과 율장에서 특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뜻한다.

책은 분문 5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부가 있다. 51개의 세부 항목이 있으며 세부 항목별 총 782개의 고사가 소개돼 있다. 제1 천부(天部)와 제2 지부(地部)와 제3 불부(佛部)부터 제19 서인부(庶人部)까지 전체 42권 분량이 인간 세계에 대한 소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승부(僧部)에서는 출가 수행자의 특별한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경률이상(經律異相)>은 1992년 동국역경원에서 송성수 선생의 초역본으로 이번엔 출간된 개역본은 오준호, 하해정, 박연주 등 전문 한문 번역 전문가들이 참여 한글화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대외포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대내연계】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특수인도】

- 자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구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물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기술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물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기술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상재 이수자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땀, 침술, 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 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 ▶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 ▶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 (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 (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과목

- 초급반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서염불, 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법, 사시불공, 관음시식
- 중급반 : 49제역시, 사다라니, 다비엔(매장, 화장)염불,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연염불, 구명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별의식 작법

- 천수바라, 북청계, 사다라니바라, 도량계(나비춤), 오공양작법, 사물타법, 화장

교육과정

초급반	중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6개월 (주1회 2시간) •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3개월 (주1회 3시간) •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12개월 (주1회 2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6개월 (주1회 3시간) • 매주 :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작법(6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의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만 사지 2매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오.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